

2019 10월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展>



2019.03. — 12.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7시 OPEN
인천도시역사관 소임홀



[00] 0000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0 0 0000 00 0000 000 0000 00 0000 0000 00, 00 00 00 0000 000000. 00 000 000 0000 00 00 00 00 0000 000 0000 0000. 0 0 300 00 00 00 000 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00 0000 0000000000 00 3000 00 1000 000000 00 0000 000 000 00, 0000 00 000 00, 0000 00 000 000 00, 00 0 0 00 000 00 0000 '000 00 1000 00 0'00 00 00 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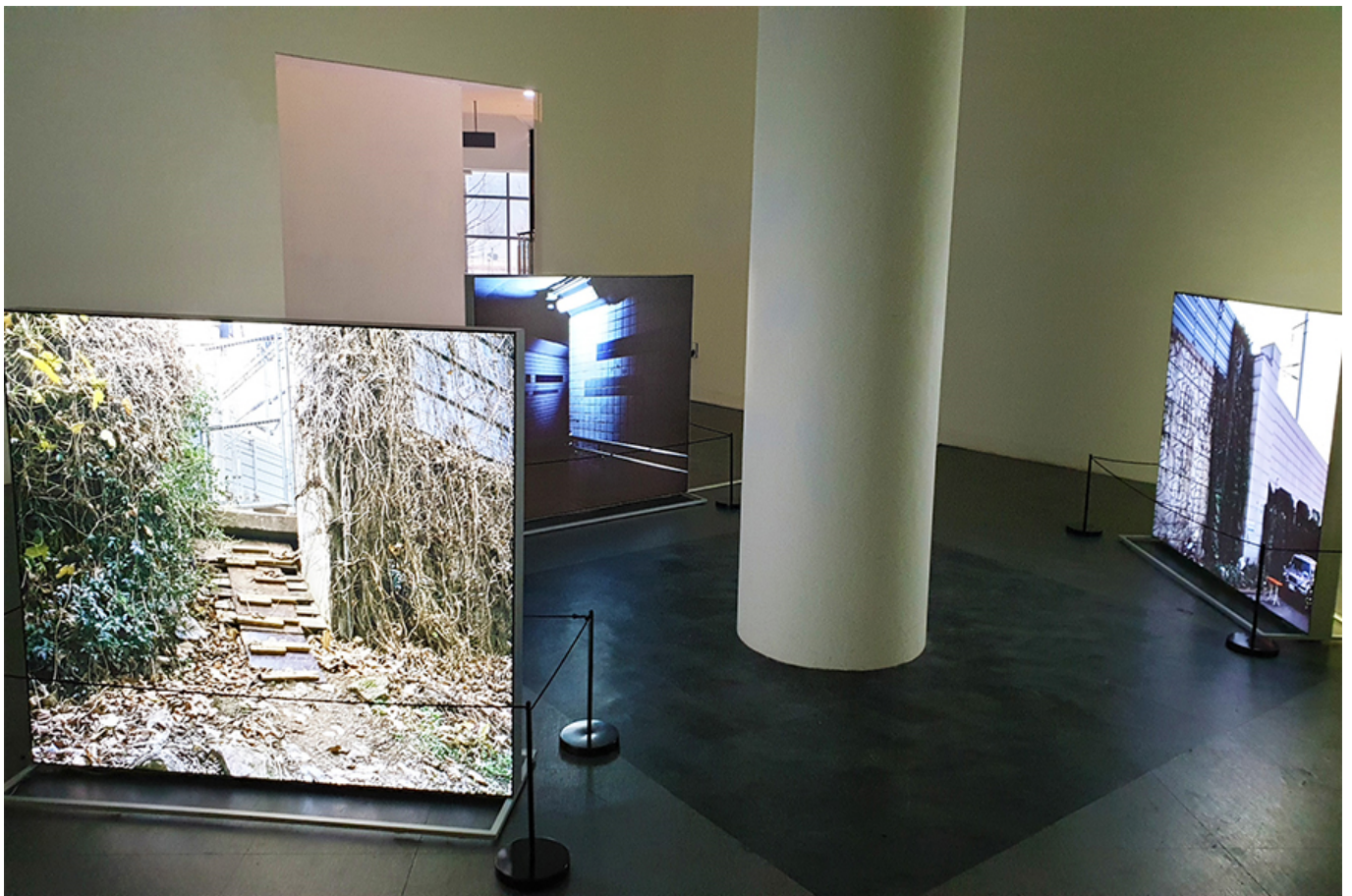
기 간	작 가	주 제
3. 27.(수) ~ 4. 9.(화)	<u>김보섭</u>	시간의 흔적
4. 24.(수) ~ 5. 6.(월)	<u>고제민</u>	기억과 삶을 품은 공간 - 인천
5. 29.(수) ~ 6. 12.(수)	<u>류재형</u>	잊혀져가는 철길, 주인선을 가다
6. 26.(수) ~ 7. 9.(화)	<u>유광식</u>	얼음집이 <u>녹는다</u>
7. 31.(수) ~ 8. 13.(화)	<u>김성환</u>	인천, 국제도시를 꿈꾸다
8. 28.(수) ~ 9. 10.(화)	오현경	나무의 복수
9. 25.(수) ~ 10. 9.(수)	<u>임침하</u>	집의 지표
10. 30.(수) ~ 11. 12.(화)	<u>오석근</u>	인천(仁川)
11. 27.(수) ~ 12. 10.(화)	<u>조오다</u>	겹쳐지는 인천 도시를 증명하다
12. 18.(수) ~ 2020. 1. 2.(목)	<u>노기훈</u>	1호선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1호선> 전시를 개최합니다. 1호선 전시를 통해 '1호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인천의 역사를 되조망하고 인천의 미래를 상상하는 전시를 통해 인천의 도시를 증명합니다.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3 2016 26 26 .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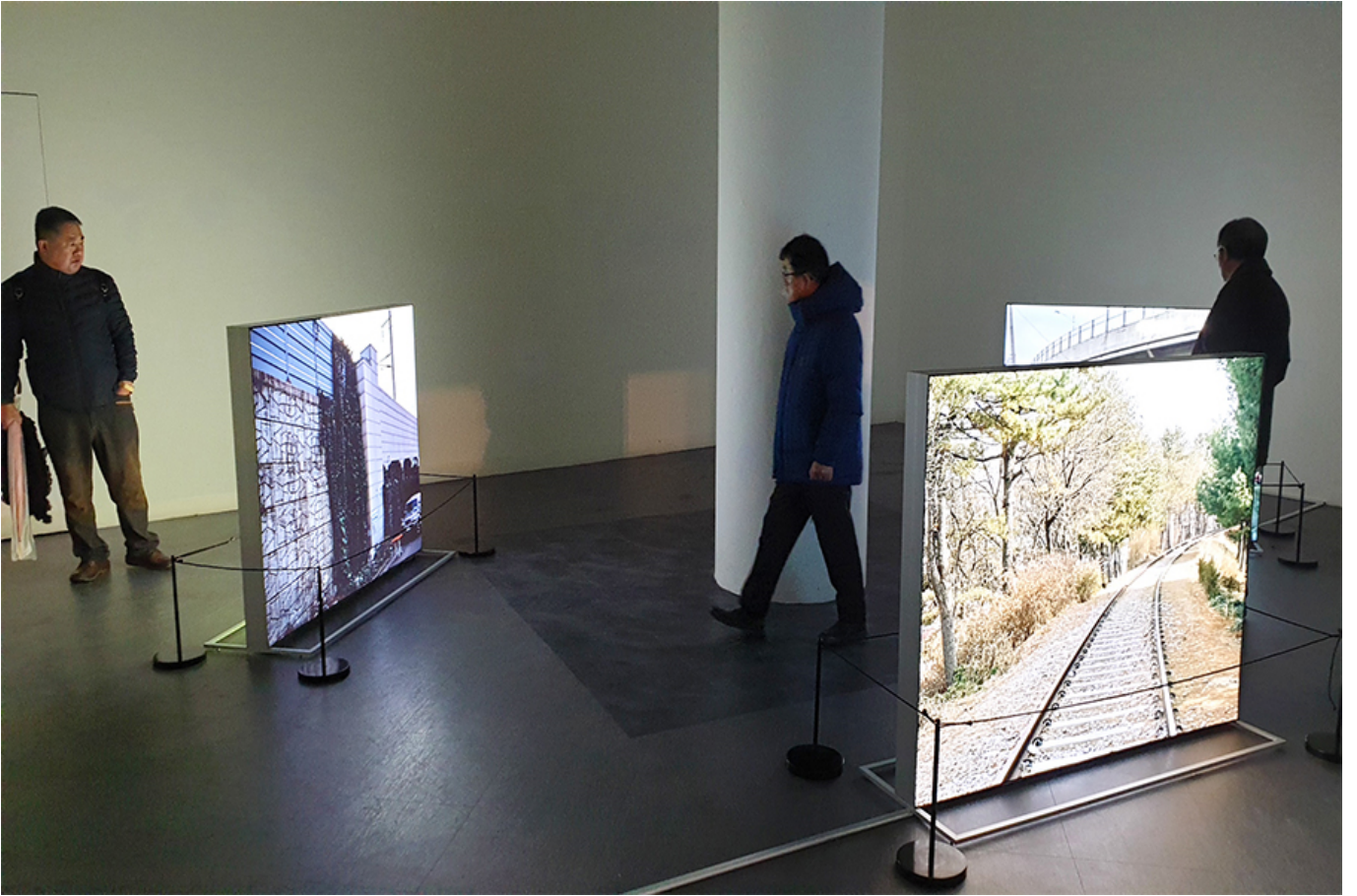
#10 노기훈
1호선

2019.12.18. ~ 2020.01.02.
인천도시역사관 소양홀

인천도시역사관 강연일보

[00] 0000000

100 000 000 000 200 000 000 000 000 0000 0 000 0000 000 00 00
00 00 0000 00 000000 0000 000 000 0000 00 000.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화면 속 풍경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토록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다목적실
소암홀
 Multipurpose Room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설치장소	경천도서관 1층 및 2층
촬영대상	건물 내 외부 지역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대상
문의처	경천도서관 행정팀 330-4400

경천도서관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

소암(小岩) 마을
 연수구 동춘동 750번지 일대의 봉채산 서쪽 구릉에 위치했던 자연마을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지금 풍동마을로
 연수파크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다.

경천도서관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750번지 일대의 봉채산 서쪽 구릉에 위치했던 자연마을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지금 풍동마을로 연수파크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라진 마을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다.



0.00 / 000

000 000 00 00 00 <000 000>

주최 인천광역시 · 주관 청년협동조합W42 · 주민주관방 가창실

입에서 입으로

청년협동조합 W42가 마련한 청년 데이북 토크

/ 우리의 스다가 진짜 기억이 되나?

160년의 전통을 가진 역사적인 축제



12/18
(수) 오후

- 1시
- 3시
- 5시
- 7시
- 9시

/ /
 셰프하우스 - 서구 원창동 215
 각 타임당 25명 - 서창순화강1
 나의 응원 마음 청년들께 나누다

본 사업은 2019 특별여가를 희망자사업 [가장께 살여줘왔다]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문의: 070-4409-7400 (W42사무국)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0000 0000 00 0000

0000 00 000, 000 00 0000 0000 000000 000 0000 000 000 000 00. 0
00 0000 0000 0000 '00' 000000 00 00 000.
00, 00 000 000 000 000 0000 00 00 00 000 000, 0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 0000 0000 000
0 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0 00. 0000, 00 000 0000 000,
0 0 000 000 000000 000 0000 000 00 000 0000 00000 00000 00. 000 0
0 00 000 00000 000 000 000 000.

0 00000 00000 00 000 00 0000 0 00 00000000 000. 000 000 00 000
0 00 00 000 000 0000 00000 000000 00000 000 0 000, 00 00 000 00
0000 000 000 00. 00 00 00 000 00 00000 00 000 00 00 000 0000 00
000 0 000 000 000 00 00. 00 000000 000 000 000 00 00-0-000-000
0-0000 000 000 0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 00 000 00 0
00 000, 00000 000 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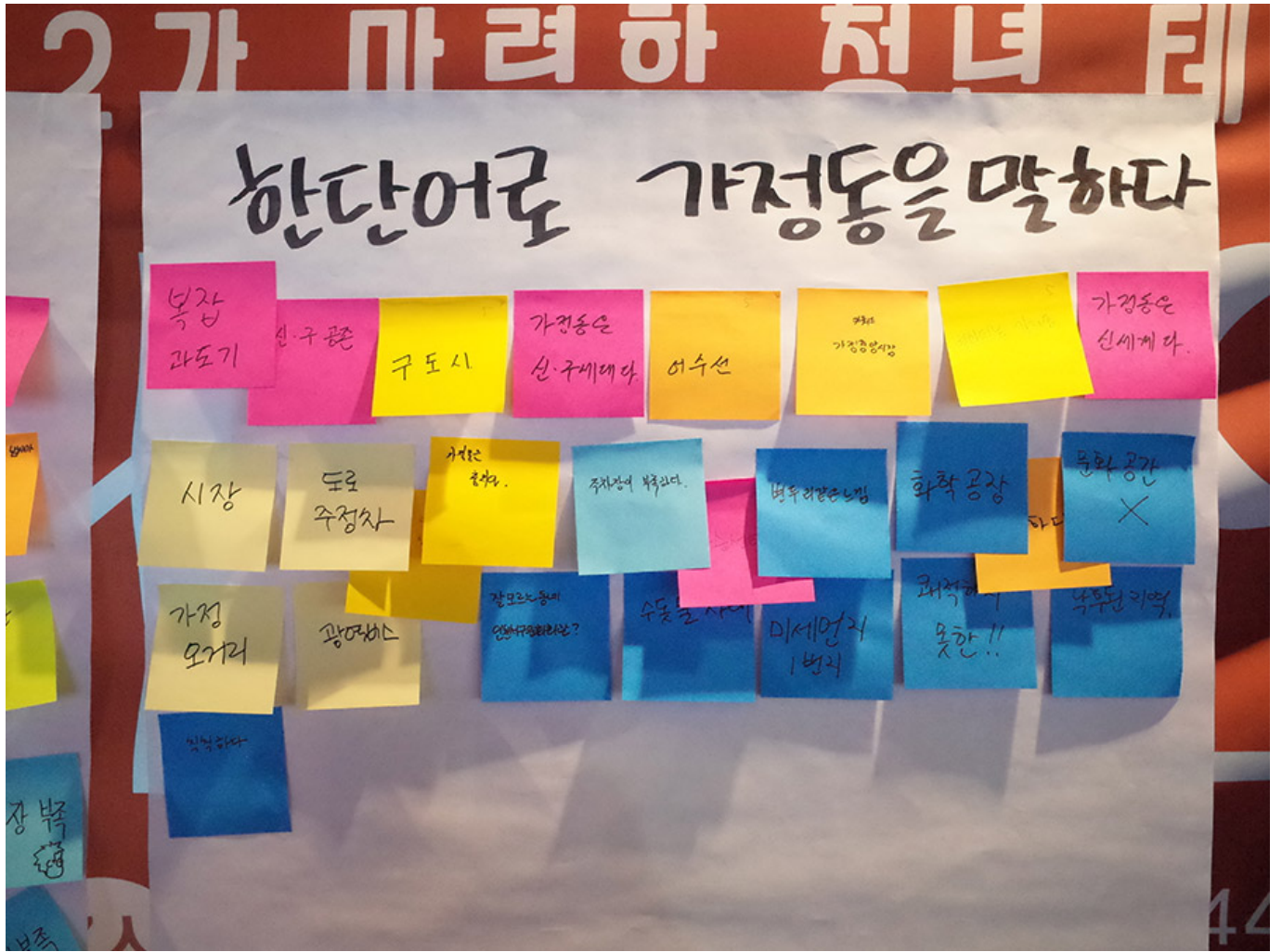
ארוחת צהריי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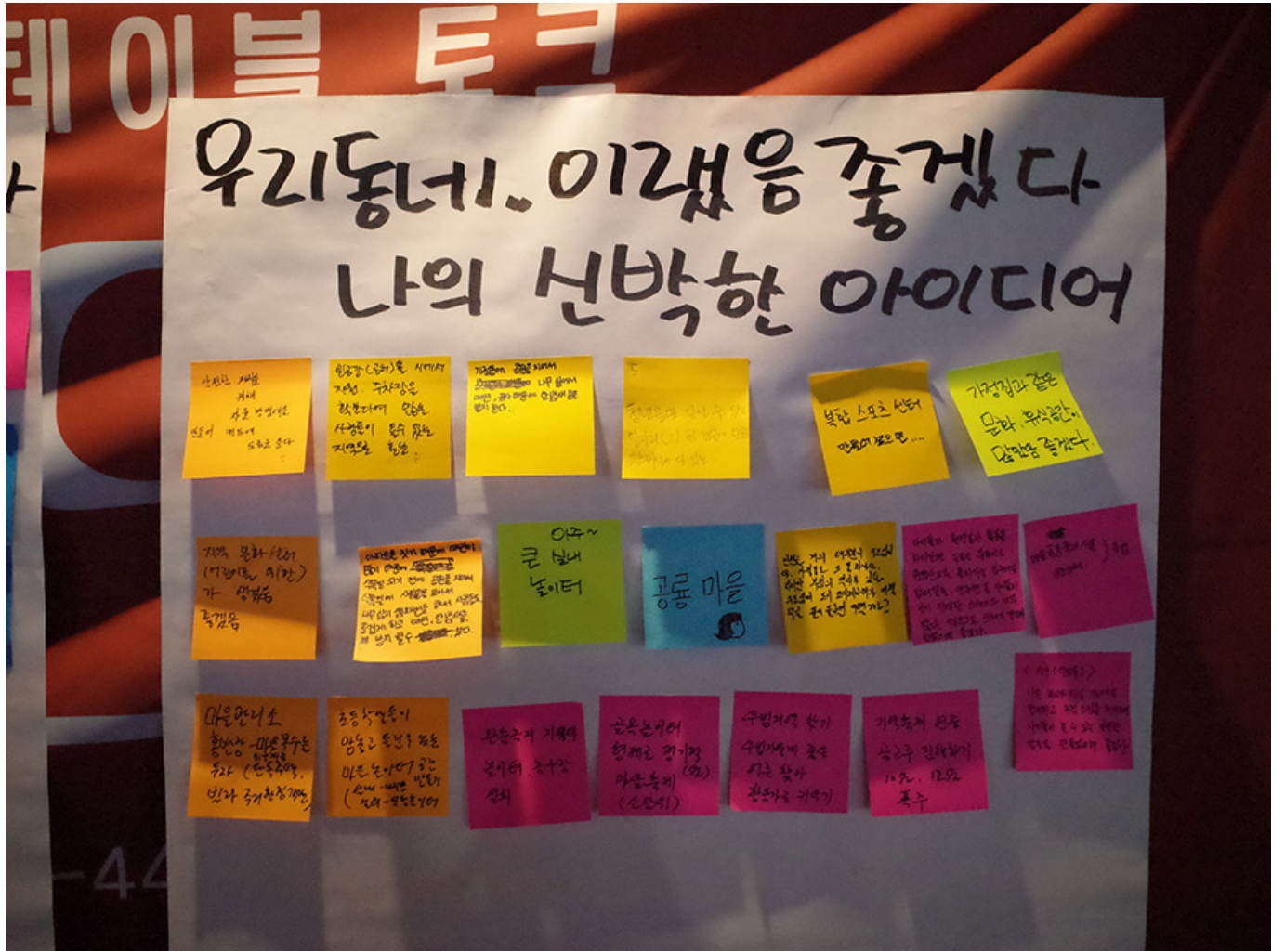
ארוחת צהריים היא אחת מהמחלקות החשובות ביותר במסעדה, והיא גם אחת מהמחלקות שהכי קשה לנהל. זהו הזמן בו המטבח והסוויט מתחברים, והקשר ביניהם חיוני להצלחה. לכן, חשוב מאוד לנהל את ארוחת הצהריים בצורה יעילה ומוקדמת.

אחת הדרכים הטובות לנהל את ארוחת הצהריים היא על ידי יצירת תפריט ממוקד. תפריט זה צריך לכלול מנות קלות ומהירות, שניתן להכין במהירות ולשלוט בהן. בנוסף, חשוב לנהל את המטבח בצורה יעילה, ולהקדיש את כל המשאבים לטיפול בארוחת הצהריים.

אם אתם מנהלים מסעדה, חשוב לנהל את ארוחת הצהריים בצורה יעילה ומוקדמת. זהו הזמן בו המטבח והסוויט מתחברים, והקשר ביניהם חיוני להצלחה. לכן, חשוב מאוד לנהל את ארוחת הצהריים בצורה יעילה ומוקדמת. זהו הזמן בו המטבח והסוויט מתחברים, והקשר ביניהם חיוני להצלחה. לכן, חשוב מאוד לנהל את ארוחת הצהריים בצורה יעילה ומוקדמ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 <□□
□□□, □ □□□ □□>

방탄 어린이, 새 시대를 열다

소파 방정환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

2019. 12. 6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소파 방정환 선생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
〈방탄어린이, 새 시대를 열다〉



어린이의 출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론

이들을 위하여야

방정환 생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의 출현

어린이라는 말은 유희환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자식은 어른의 명령에 따르거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동력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어린이는 부모나 집안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어린이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라는 새로운 생각이 싹텄습니다. 어린이는 고귀하고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과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자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어린이관이 1920년대 방정환과 어린이운동가에 의해 널리 퍼졌습니다.

* 거꾸로 된 글자가 다섯 개 있습니다. 찾아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대한뉴스로 본 어린이날

1970년대
과자종합선물세트

1960년대
야구글러브,
스포츠신발

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때문이지요.
찾을까요?
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

어린이 여러분

대한뉴스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하여
매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기사를 통하여 어린이날의 의미를
알고,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뉴스 편집부
1970년 5월 11일



1. 어린이날 1954. 5. 5 대한뉴스 제 40호
 2. 어린이날 제정일 1945. 5. 11 대한뉴스 제 313호
 3. 5월의 기념의 날 1975. 5. 10 대한뉴스 제 1030호
 4. 세브고 백의의 날 1983. 5. 7 대한뉴스 제 1435호
 5. 영수년의 날 1994. 5. 11 대한뉴스 제 2009호
- 대한뉴스 편집부

十年後朝鮮童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들
대한뉴스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하여
매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이 기사를 통하여 어린이날의 의미를
알고,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뉴스 편집부
1970년 5월 11일

"십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여"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 창립 1주년 기념 '어린이의 날'
『동아일보』 1922. 5. 1

1925 27세
〈동생을 찾으러〉 연재

1926 28세
〈칠칠단의 비밀〉 연재

1927 29세
라디오 방송 "어린이와 직업"

1928 30세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최

1929 31세
학생일기 『학생』 창간

1921 23세
『신청년』 발간

천도교소년회 창립
'어린이의 날'



00, 000, 0000 00 0000 00 000. 300 00 000 00 000 12000 00 00000
 00 00 000 0000 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 00 0000 0000 00 000 000 00 00000 000 000 000 00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 100 /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이 PD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 100,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00] 000000 0000

00 00 000 0 000 000 00 '0000'0 0720 000000 0000 000000 00000 0 0
 00 00000 000 00 00 000000. 0 000 0000 10000000 0000 00 0000 0000
 1000 000 000 00 000000 00 0000 00000 0 0 00.

120 120 00000000 00 000000 000000 00000 '00000 1000, 000000 0000!'0 0
 0000. 000000000 000000 00000 0000 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 PD0 0
 00 000. 00 000, 0000 PD0 00 00000 10000 00000 0000 0000 00000 0000 0
 0000 00000 000000. SBS0000 3000 PD0 8000 00000 00000 0000 00 00000 0000 00000
 00000 0000 00000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 00000 00 00 0

0000 000 00 00 0000.

00000 000 PD 00000 0000000. 000000 100000 000 00 0000 00 0 0000 00
0 0 00. 8000 000 00 0 0000 0(0) 00000 00000 0000000 0000 9000 00 0
0 0000 0000 00 000000 00 00 000000 00 000000. 000000 000 PD 0000 00
0 00 0000 00 00000. 0000 0000 00 0000 '00 00000' 00 00. 00 0000 00 0
0 00000 00 000000 000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 '0000 00 00000?' 0000 0000 00 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00 00. 0000 0000 000000 0000 00 0000000 0000000 0000 0
0 0000 0000 00000.

0000 0000 100, 00 0000 00 0 0000

00 10000 00 00 000000 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0 0000 0000 00 00.
1000 0000 000000 000000 00 1,0000 0000 00 00000 0000 00 '00000' 00 00
00000 10000 0000 0000 0 0000 00000 000000. 00000 00 00000 00 00000 0000
0000 00000 0000 00 00000 0 0000 000000 00000 0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 00 0000 0 0000 000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
0 0 00 0 00.

0/
0000 000000

2019 0000000 00000000 <0000 00 00
00>

렉저콘서트(강연+공연)

재즈로 읽는 모던 조선

2019 트라이보울 예술아카데미
〈재즈로 읽는 모던 조선〉

장유정과 주화준트리오

백제콘서트(강연+공연)

재즈로 읽는 모던 조선

장유정과 주화준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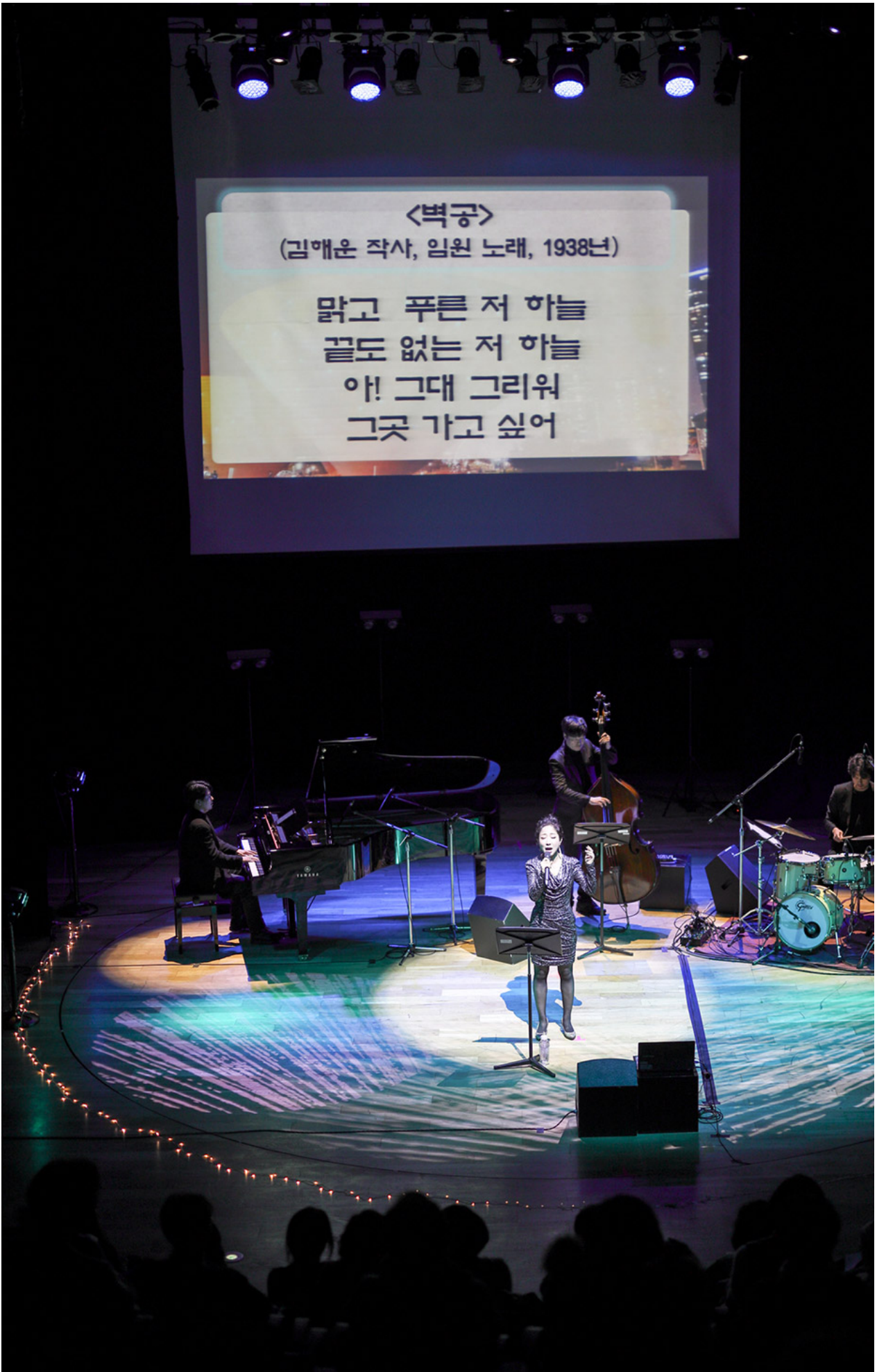




<벽궁>

(김애운 작사, 임원 노래, 1938년)

맑고 푸른 저 하늘
끝도 없는 저 하늘
아! 그대 그리워
그곳 가고 싶어





1. 조오는 푸른 땅을 아득 흘러간 그날 밤이 새웠다 조그만 것집에서 안주된 그날 밤 해에 푸른다 그날은 그 밤을 꾸민다나 푸르구나 시련에 시련 강이 파르나 시름은 사랑 스러진 그날 그대는 가도 나 혼자 슬퍼 블루스에 나는 순다 조오는 푸른 땅을 아득 흘러간 그날 밤이 새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 의미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공공의 날>을 맞아, 12월 20일 <공공의 날 2주년>을 맞아 '공공'의 의미를 되새기며, Cray koo (공공), 공공(공공서비스)을 4년째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1920년대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30년째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1년 30년째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공공의 날을 맞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예술의전당 한옥마을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7년-2018년 (2017)'의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2017-2018년(2017)-2018년(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3부작의 공연으로, 전통예술(2017)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 09. 03. ~ 11. 23(□□ □□□)
@□□□□□□□□□□ □□□□, □□□□

□□·□□ : □□□□□□, □□□□□□□□□
□□□□□ □□□

□□□ □□□□□ □□□ □□ □□□□□ □□ □□ **10** □□, <□□□□□□ □□>

□□ □□□ □□□□ □□ 11□□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2010□□□□ '□□□□
□□', 2011□□□□ '□□□□□' □ □□□□ □□□ □□ □□□ □□□ □□□□□, 2012□□□□□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 □□□ □□ □□□ □□□□□□

이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1980년대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로, 이 시기에 많은 사회적 비판을 담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제 개방과 함께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계층 분화를 다룬 작품들이 증가했다. 2000년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문화 현상과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은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1980년대는 '민중가요'라는 장르가 등장하여, 노동자, 학생, 농민 등 사회底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민중가요'는 단순한 민중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2세대 가수들은 1세대 가수들과 달리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민중가요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남성 중심의 대중음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남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민중가요는 단순한 민중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2세대 가수들은 1세대 가수들과 달리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민중가요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남성 중심의 대중음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남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민중가요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한 남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가수들은 '민중가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인 가요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0000. 00 00 <0000 00>0 00, 0000 00 00 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00, 000 0000 00 000 000 00 00 000 000000 0 0 00 00 0 0 000 0000.

00 0000 0 000 0 00 00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 00 00 000, 0 0 00 00 00 0000 ‘0’0 00 000000. <0000 00>0 00 000 00 “00 00 00 000. 000 0 0000~.” 00 000 000000, 00 0 000 00 0000 000 000000 000, 0 000 00 0000 000 ‘0’0 00 000 00. ‘0’000 000 00 000 0 000000, 00 000 ‘0’0 00 000 000 00 000 00 00000 000000. 00 0 00000 00 000 000 000 000 ‘0’0 00 00 0 0 000000 000 000 000 0 00. 0000 1000 00 000 00 0 00000 000 00 0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0 0 0000. 0000 00 00 000 00 000 0 00 0 000 0000 00 0000 00 0000 00. 0 00 0000 000 00 000 000000 0 00. 0 00 201400 20160 0 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 0000 0 0 00 000000 00 000. 0000 0 00 0000 000 ‘0’0 0000 00 000 00 0000.



0000



이 공연은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즐거운 관람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